

우린분절 특집 지상법석

누구나 지장보살 화신

“이기심·원망하는 마음 씻어내고 지금 이 자리서 성불씨앗 파종합시다”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서원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의 입제법회는 이미 회향의 기쁨으로 넘쳐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세상 인연을 먼저 마치고 간 우주 무주의 영가들을 위해서도 좋은 인연의 실타래를 드릴을 축원을 하셔서 온 증생계의 성불을 간절히 빌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절에서의 생활을 토굴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로 보면 초라한 작은 절에 불과하지만 토굴로 보면 호화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혼자서 지내다 보니 혼자서 묵탁하고 절도 하고 법문도 하고 청수도 하고 모든 것을 해요. 어떤편 혼자 복치며 악파는 악장사 같다는 생각이 들어 혼자 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토굴 생활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고 그게 또 편해요. 누구 간섭도 안 받고 신도분들이

마음대로 하나구요.

이렇게 말과 함께 도인의 생활을 누린 방거사도 그분의 도반스님이 '요사이 뭐 하고 지내느냐' 하니가 '나는 밥먹고 잠자고 물고고 청소하는 것 이상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가 얘기했듯이 일상적인 것 이상 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절에 오고 일상 생활하는 것 속에 도(道)가 있고 부처님도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상생활속에 밥먹고 잠자고 청소하고 집안 살림하고 걸어다니고 숨쉬고 하는 모든 것이 바로 도인의 생활인 것이지 도인의 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아시고 평소에도 도인의 마음으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자숙문 앞에서 눈을 흘리는 지장보살님,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서 계신 곳이

중국의 위대한 시인 소동파 선생이 불인 요원(佛印了元) 선사와 하루밤을 같이 지내고 나서 도를 깨쳤는데, 소동파가사가 읊은 오도송을 소개해 드립니다.

물흐르는 소리가 바로 부처님의 법문이요, 산의 푸른 빛 높이는 솟은 바위의 모습이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큰 절에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등 여러부처님을 모셔놓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우리 증생들의 신앙의 대상을 삼기 위해서 모셔놓은 것이지 반드시 그런 모습속에만 부처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을 떠나서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모습도 비로자나불이고 삼라만상 그대로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

과 거사가 그날 밤에 읊은 팔만사천계송을 다른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주겠는가 하고 안타까워 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너무나 몰라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부처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이나 모습들이 또한 부처의 나뭇잎이라는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잊지 않고 지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극락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밖으로 보이는 것만 듣고 보지만 마음으로 삼라만상이 법신임을 굳게 믿는다면 모든 사람의 말이나 자연의 소리가 바로 부처님의 법문으로 들릴 것이고 저절로 청정한 마음이 일어나 기쁨이 향량없고 선을 닦아가게 될 것입니다.

흐르는 물소리에서 여러가지 자비의 소리로 들리게 되고 바람의 법문도 듣고 신통지혜의 법문도 듣게 되어 청정한 마음을 일어나게 해서 나쁜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니 저절로 선업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주 세상을 바꾸고 그 속의 나를 바꾸어 가면 선을 닦는 사람이 많아지고 악을 짓는 사람은 줄어들어 지장보살님의 원이 앞당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바로 지장보살의 화신이니



“시제법공상 불구부정 불생불멸 부중불감...”이라고 설한후 경전은 바로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이라고 설한다. 공한 상을 애써 설명한 후 곧바로 공(空) 가운데는 아무 것도 없다고 선언한다.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은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와 다른 뜻인가?

물질계만을 생각할 때 색즉시공 공즉시색 공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와 다른 뜻인가?

물질계만을 생각할 때 색즉시공 공즉시색 공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와 다른 뜻인가?

정신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분별지로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니 보는 자도 보이는 세상도 다 공과 같다는 뜻이다. 물리학이 불교에서 말하는 공(空)의 개념을 그대로 설명할 수는 없고 물질계만 생각하여 물리적 진공의 구조를 살펴보고서 오관으로 관측할 수 있으나 없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물리적 진공의 구조와 오관으로 감지하고 인식하는 물질계의 구조에 차이가 없고 또 물질이 진공에서 나오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에서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라고 했지만 처음부터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생기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기에 진공을 생각할 것도 없이 무색이라고 하는 말은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것과 다른 의미를 가지므로 “시고 공중무색...”이라는 말은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말이므로 물

중생 어리석음 극락·지옥 분별하는데서 시작 삼라만상이 법신... 흘러가는 물도 부처님모습

먹을 것 다 가져다 주니 걱정할 것 없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나한테 뭐하고 지내냐고 물으면 나는 밥먹고 잠자고 물고고 청소하는 것 이상 없다고 얘기해요. 그것 이상 없어요.

중국의 유명한 거사인 방거사에 얽힌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인도에는 유마거사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부설거사가 있는데 모두가 출가하지는 않았지만 공부의 깊이가 한량 없는 분들이지요. 방거사도 출가하지 않고 가산을 다 팔아 버리고 딸이 싸리나무로 발을 만들어 팔아 생계를 유지하며 산 속 오두막에 살았답니다. 그 분은 조그마한 오두막에 살았는데 원래 도인들은 그런 곳에 살아요. 나도 도인될려고 토굴에 살았어요. 그런데 방거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해가 어디쯤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하니가 그 딸이 나가 보고 하는 말이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일식을 합니다' 라고 해서 방거사가 '그럼 나도 봐야지' 하고 나간 사이 딸이 방거사 자리에 누워서 먼저 가버렸어요. 나갔다가 돌아온 방거사는 '아이쿠 속았구나' 했습니다. 딸도 역시 도인이었던 것이죠. 죽고 사는 것을

바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이곳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이 극락이다가 지옥이기를 반복하는데 어떤이는 극락의 마음을 가져 극락에 노닐고 어떤 사람은 지옥갈 죄업을 지어 지옥의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는 곳이 여기 이 세상이 아닙니까. 극락과 지옥을 같이 나누어 분별하는데서 이미 중생의 어리석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성불을 하겠다'고 서원을 했다가 '아이고, 금생에는 안되나 보다. 다음생에 성불하기로 하자' 한다면 다음생에 그 서원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곳 서원을 한 이 자리에서 성불의 씨앗을 파종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그 열매를 따 먹을 일도 미리 마음을 옮겨가서는 안되는 겁니다.

산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바로 부처님의 광장설이라 산의 여러 모습이 어찌 부처님의 청정법신이 아니겠느냐

어제저녁의 얘기가 잠꼬대가 팔만사천계송인 것을 그것을 다른 날 어떻게 사람에게 주겠는가

러분들은 비로자나불 속에 꼭 파묻혀 살고 또 여러분 자체가 바로 비로자나불인 것이지요. 삼라만상 그대로 청정법신인데 여러분의 몸중이 어찌 비로자나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부처인줄 모르고 있는 여러분들을 모두 부처 만들어 드렸으니 모두 오늘부터 부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중국의 큰 절에 행자와 노스님 한 분이 있었는데 행자가 어느날 부처님을 향해 침을 탁 뱉는 것을 보고 노스님이 감히 부처님앞에 침을 뱉는다고 호통을 쳤지요. 그랬더니 그 행자가 '부처님 아니 계신 곳을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거기다 침을 뱉겠습니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요. 한 강물이 흘러가는 것이나 바람이 부는 것이나 태풍이 일어 물결이 출렁이는 것 모두가 부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세상 모든 모습이 바로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소동

“오늘부터 부처로 살아가십시오
부처님처럼 큰 마음으로
나 바꾸고 세상 바꾸며
일상을 청정하게 사세요”

내가 성불하려면 다른 증생들의 고통부터 먼저 살펴 풀어주고 타인들부터 부처님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살아가는 가족을 위하고 직장동료를 위해 마음 써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는 골레, 이기적인 생각, 원망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너와 내가 따로 없이 모두 부처라는 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크게 살피고 마음을 넓게 쓰면서 생활한다면 부처님 경전에 설해진 아미타 극락세계가 바로 여기에 펼쳐질 것입니다.

“시제법공상 불구부정 불생불멸 부중불감...”이라고 설한후 경전은 바로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이라고 설한다. 공한 상을 애써 설명한 후 곧바로 공(空) 가운데는 아무 것도 없다고 선언한다.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은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와 다른 뜻인가?

물질계만을 생각할 때 색즉시공 공즉시색 공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와 다른 뜻인가?

물질계만을 생각할 때 색즉시공 공즉시색 공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와 다른 뜻인가?

정신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분별지로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니 보는 자도 보이는 세상도 다 공과 같다는 뜻이다. 물리학이 불교에서 말하는 공(空)의 개념을 그대로 설명할 수는 없고 물질계만 생각하여 물리적 진공의 구조를 살펴보고서 오관으로 관측할 수 있으나 없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물리적 진공의 구조와 오관으로 감지하고 인식하는 물질계의 구조에 차이가 없고 또 물질이 진공에서 나오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에서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라고 했지만 처음부터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생기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기에 진공을 생각할 것도 없이 무색이라고 하는 말은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것과 다른 의미를 가지므로 “시고 공중무색...”이라는 말은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말이므로 물

무색과 상대성의 세계

물리적현상 관측자따라 다르게 표현
호은 허무아닌 정신·물질 모든것 근원

새 영양물질 발명! 생옛, 그냥 옛이 아닙니다. 동양철학의 결정체입니다.

건강보조 식품계의 대혁명

장원 생옛!
이런분께 소개합니다.

21세기 건강식품

- ★장원...은물 임통 제일
- ★생옛...생약 재료 옛처럼 만든것
- ★건강...장원 ★장수...장원
- ★미용...장원 ★행복...장원
- ★공부...장원

바다의 나트륨성분과 육지의 칼륨성분을 추출한, 독특한 영양물질 탄생!

- ▶ 인체의 건강은 음성원소군(대표자 칼륨)과 양성원소군(대표자 나트륨) K/Na의 조화에 의하여 유지됩니다.
- ▶ 인체의 질병은 체질의 산성화로 냉(冷)한데에 있습니다.
- ▶ 장원생옛은 두원소의 비율을 조절하는 영양식품으로 100%순수 식물로 구성된 한방식품입니다.

1개월분 표준가격 : 280,000원

- ◎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
- ◎ 남녀40세 후반부터 생기는 여러증상으로 고민하시는 분!
- 얼굴색이 누렇고 피부가 매끈하지 않고 울퉁불퉁하다.
- 검버섯이 생기고 원인을 몰라 두드러기가 자주 일어난다.
- ◎ 뼈가 시리고 몸이 무겁고 손발이 차고 저린 분
- ◎ 산후 비만으로 고민하시는 분!
- ◎ 과다 체중으로 고민하시는 분!
- ◎ 피로에 지친 수험생!
- ◎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 여러분!

연구개발원
인강당 생약 연구원
제조원: 남광산업주식회사
판매원: 불교건강원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2동 384의 10

상담실 (051) 465-5100

☎ 전화주문하시면 전국 어디서든 배달하여 드립니다